

만남

80
SINCE 1945
YOUNGNAK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9월은 가을의 문턱에서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줍니다. 들꽃의 겸손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도 말씀 안에서 성숙한 열매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9월 목회력

- 05 금 · 연합권찰모임 하반기 개강
- 07 주일 · 유아세례식, 찬양예배 성찬
- 14 주일 · 제직회
- 21 주일 · 전교인 만남주일
- 23 화 ~ 25 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06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13 토 · 80주년 기념음악회
- 19 금 · 심방준비회
- 21 주일 ~ 11/16 주일 · 총동원 전도캠페인
- 28 주일 · 주일예배 성찬(1~5부), 사회봉사주일

만남

2025년 9월호
통권 617호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02 가장 엄한 명령 김운성

특집 복음, 세상 속으로! 우리는 전도자

05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강승훈

06 복음의 선순환 꿈꾸는 영락교회 전도 김무섭

08 전도 간증 윤영선·김은경·황정숙

10 그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현우

12 인터뷰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 김성문

16 인터뷰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 김성문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20 영락교회는 미군정의 특혜로 세워졌는가?下 박명수

23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만남 그리고 사람들

24 3평 땅에 뿌린 스마트팜 씨앗 최성원

26 2025년 신입권사 수련회를 다녀와서 류화정

28 고인 가는 길, 은혜의 찬송 동행 송봉혜

청년광장 / 다음세대

30 매일 부어주시는 사랑 흘려보낼 뿐 조은영

32 습관 넘어 피어난 회복의 찬양 박경준

34 통일독일 현장에서 드린 간구 조원형·최강원·장재원

37 사랑부, 잊지 못할 여름수련회 양승관

38 가스펠탐험대와 함께 '부흥대작전' 박서후

40 '우연 아닌 은혜였음을' 김윤성

영락의 율타리

42 제110회 총회를 준비하며 김순미

44 미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안태성

46 신입교역자 이지철·김여호수아·채철우·김종훈

50 하나님이 하시니까... 노방전도 겁 안나요 이재향

52 토요일의 산상기도회... 교구 연합으로 치러 김성환

54 조용히 빛나는 별, 한경직 이승희

56 보이스피싱 '작은 방심' 파고든다 김신희

58 새가족부 신앙 정착반 소개, 간증 김은경

61 특별새벽기도회, 하반기 은혜의 첫발 김천경

62 '2025 복적복적 공모전' 개최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교회소식

66 하반기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외

68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은혜

69 새아가·새가정



가장 엄한 명령

김 은 성 담임목사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1~5)

본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신 엄한 명령입니다. 바울의 어조도 엄할 뿐 아니라, 상황도 엄중했습니다. 이때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였기에, 이 말씀은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울의 평생에 가장 가까웠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서신이 아닌 대화였다면, 디모데는 무릎이라도 꿇고, 눈물 흘리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

타나실 것과”라는 대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라는 말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한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이토록 엄중한 명령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 전파야말로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을 부르신 후, 주님께서서는 다메섹의 신실한 성도인 아

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 안수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의 바울의 삶은 말씀 전파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전파 없는 바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 늘 함께하고,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 역시 동일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 전파야말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2절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구절은 ‘늘, 언제나’란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 전파의 조건이 성숙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힘써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늘,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말씀 전파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가십거리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참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너희는 언제나 힘써 말씀 전파하라”
바울·디모데를 주께서 부르신 이유*

*전도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
기도로 힘 얻고 전도로 열매 맺기를...*

상황에서 오래 참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전파, 5절의 말씀처럼 ‘전도자의 일’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 작은 일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존재 의미를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전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하는 가시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기저에 말씀을 전파하려는 태도가 있는지입니다.

올해 영락교회는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는 남을 위해 시급할 뿐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시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히 명합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로 삶의 의미를 얻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만남**



특집

복음, 세상 속으로! 우리는 전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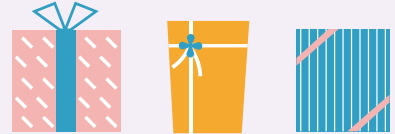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9)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전도는 여러 가지 일 중 작은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 전도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는 복음이 전도지와 강단을 넘어 스크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하철역과 광장, 버스 뒤편에 달린 복음광고, 유튜브에서 퍼지는 수많은 간증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또 다른 '광야의 외침'이다. 물론 가장 강력한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 세상은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된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고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가을의 문턱 9월, 누군가의 삶에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심겨지기를, 그리고 그 이름이 구원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자.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수만 명의 성도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영락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이 오랜 시간과 역사의 무대 위에서 만나 저마다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상자 안에 담긴 구원의 선물 누리야

이 모든 목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열린 신앙의 장이 바로 영락교회에 허락된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영락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속한 '구원'은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에베소서 2:8)로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안에 담긴 구원의 실재를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강승훈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전도부

하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포장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포장에 불과한 선물 상자 자체를 선물의 전부라고 여기고,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야고보서 1:6~7)일까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나누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삶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통해서도 선물 상자 안에 담긴 영생의 구원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훈련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사도행전 1:8)으로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선물 상자'를 여는 일입니다.

먼지 쌓여 있는 선물 상자 이젠 열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방에 놓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 상자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너무 귀하게 여겨 깊숙이 보관해 둔 채 먼지만 쌓여 있는 선물 상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 상자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누리

며 사용해야만,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이 되어 우리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꼭 열어보세요. **만남**

복음의 선순환 꿈꾸는 영락교회 전도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선순환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앙 수준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도사역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전도된 대상자가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시 새로운 전도의 주체로 세워지는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플랫폼 전도’와 ‘맞춤 전도’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도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무섭 장로
서초교구
전도부 부장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는 전 교인이 자발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사역으로, 매년 1월 ‘전도 작성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개인의 전도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 마련한 ‘전도지원프로그램’은 ‘전도를 도와드립니다’라는 표어 아래, 전도 상담 및 평신도 전도사역자와의 1:1 매칭, 방문 전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도를 배우고자 하는 성도를 위한 체계적인 전도훈련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나의 전도학교’는 전도하는 방법과 동기를 부여하는 기초훈련과정이며,
- ‘전도폭발훈련’은 전도사역자를 양성하는 심화훈련과정입니다.



- 이와 함께 평신도 전문 전도사역자의 임상훈련 프로그램인 ‘거점 교회’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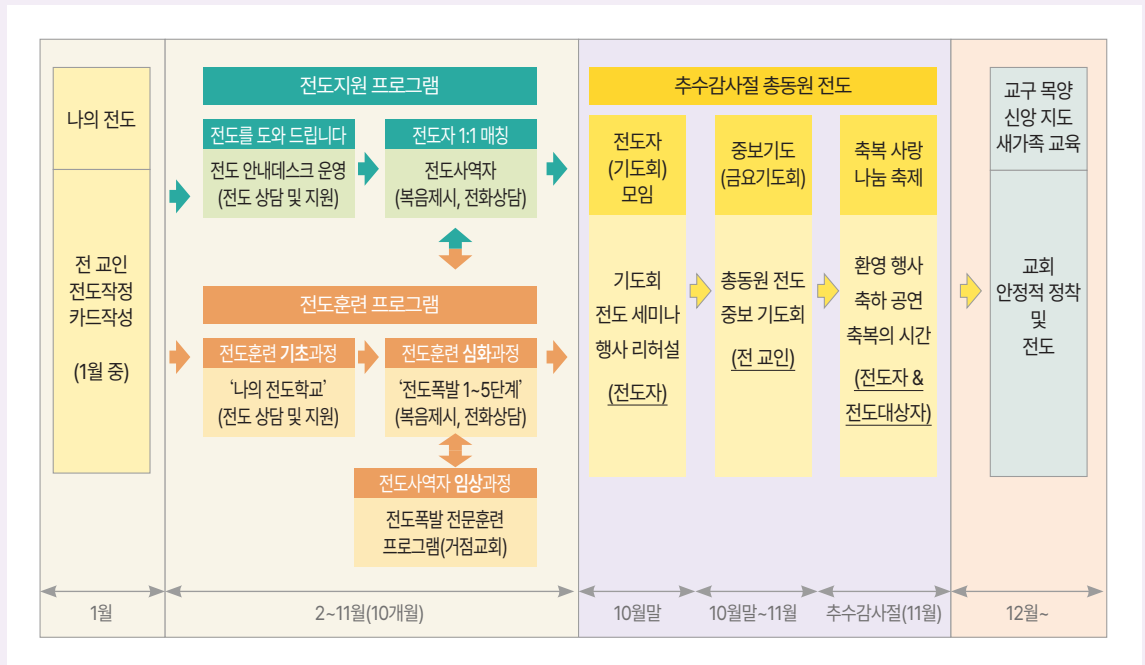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전도

맞춤 전도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진행하는 총동원 전도 행사입니다. 전도자 기도회, 전교인 중보기도회, 축제 형식의 전도 행사 등을 통해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전도사역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사명, 전도

전도는 특정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입니다. 일상 중에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도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락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영락교회 전도 프로세스



춤추는 찬양, 심어지는 복음 “하나님 믿습니다” 軍心 활짝

선교부 문화선교 스티그마팀은 군선교를 위해 전도폭발팀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발 길에 스티그마팀 세 명은 음악을 들으며 동작을 맞춰 보았고, 전도폭발팀은 두 명씩 짝을 이뤄 복음 제시 시범을 보이며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 교회는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예배 시작 전부터 군인들이 반 이상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찬양팀이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무릎을 살짝 치거나 의자 밑에서 손뼉 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에는 언제나처럼 감사하고 가슴 떨리도록 감동되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군인들의 마음에 섬기고 뿌리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찬양곡 ‘우리 때문에’와 ‘우리 주를 만나고’를 기쁨에 겨워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군인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길 기



가운데가 팔자

도했습니다. 예배 후, 처음 오신 분들의 인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등의 소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과 만나주셨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 복무 중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군 제대 이후에도 믿음이 이어지길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도폭발팀이 3~4명씩 모아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팀은 함께 중보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부담으로 시작된 선교였지만, 설렘으로 도착하여 감동으로 채워졌고, 돌아와서는 모든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초대해주신 전도부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군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윤영선 집사 _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 스티그마

아픔과 절망 속 결신의 은혜 병원에서 만난 살아계신 주님

전도자 김은경입니다. 처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 무척 두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전도를 처음 나갔던 날, 환자들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듯 돌아왔던 기억이 아직

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병원을 찾았고, 지금은 매주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는 때로는 힘들고, 가족과 지인들의 조롱과 비판으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제 안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견고히 하셨

습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보라매병원에서 무교의 61세 환자분이 복음을 듣고 눈물로 결신하셨고, 오랜 천주교 신자였던 다른 환자분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병원 전도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격하는 감격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픔과 절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은경 권사 _ 강서·구로·양천교구, 전도부 병원전도팀장



왼쪽이 필자



왼쪽이 필자

토요전도폭발훈련을 1기부터 43기까지 받으며, 꾸준히 참여해 온 노방전도 중 노숙자 전도만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보니, 그가 앉은 바닥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에게 구타당하고 흘린 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피가 고인 바닥을 먼저 봤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팀원들은 노숙자에게 필요한 일용품 등을 나눠줄 때, 반드시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복음 전파가 핵심이기 때

두려움 떨치고 거리 전도 15년 뿌리기만 하면 거두시는 하나님

문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마태복음 25장)를 기억하며 전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으로 정성껏 대합니다.

매달 주일 저녁, 10명 내외의 팀원과 을지로 입구, 남대문 지하, 서울역을 돌며 예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때는 보통 8~90명 내외의 결신자가 나오곤 합니다. 평일 저녁이나 밤에는 2~5명 정도의 팀원이 한 장소를 정해 시청역, 명동역, 용산역 등에서 전도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팀은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황정숙 권사 _ 용인·화성교구, 전도부 노방전도팀장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꺼려졌던 전도,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나의 전도학교’ 1기를 수료한 성도 정현우입니다. 저에게 전도는 항상 꺼려지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계속 미루고 미루기만 했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던 중, 대상자를 만나려고 연락하려는 찰나에 영락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이 여전히 꺼려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전도학교를 수료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순한(?) 동기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내한 순간이 없었다

전도학교에서 들은 목사님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죄의 본질은 지독한 자기애”라는 것과 “삶이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이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저 자신을 죽이고 인내했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몇 가지 모습조차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건강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제 안의 철저한 교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디지만... 섬김과 기도로 변화되는 신앙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순식간에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뀌며 작은 문제에 쉽게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사실이 깨달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제인 간증문 작성을 통해 저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니,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 잠식되어 늘 불신과 불안에 가득 찬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만나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보이지 않게 저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도 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은 많이 부족하고, 열매가 적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정현우 성도
성동·광진교구



아직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평생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지금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온 내가 앞으로도 분명히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간구가 진리를 여는 열쇠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9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겸비함’과 ‘간절함’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항상 갖게 해달라’는 간구가 빠지지 않게

되었고, 전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한층 줄어든 반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소그룹 시간에 다른 분들의 신앙 여정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서도 기막히게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유익

마지막 시간에 배운 전도법은 성경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여 전도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전도의 유익’에 해당합니다. 이제 저는 전도 대상을 만나러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도를 두려워하던 예전의 저를 넘어서,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만남**

K-애니메이션으로 복음 전하는 이 남자 “왕의 왕,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인터뷰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흥행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4월 북미 개봉 17일 만에 영화 <기생충>의 북미 최종 수익을 넘어 국내 단독 제작 영화 중 북미 흥행 순위 1위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국내 개봉 19일 만(8월 4일 기준)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제작 기간만 10년, 그 처절한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며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성호 감독. 그가 설립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 기업 ‘모팩스튜디오’에서 『만남』은 그의 고통스럽고 성스러운 10년의 도전과 믿음의 여정을 들어봤다.

만남사람 - 김성문 편집장/안수집사
사진: 박홍기 안수집사



처음부터 복미를 겨냥, 뜨거운 반응

〈킹 오브 킹스〉는 처음부터 복미 시장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기획했다. 장 감독은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 “성공할 수 있겠냐”며 다들 말렸지만, 새로운 구조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면 충분히 대중에게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기획은 복미 관객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다. 그는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것은 〈이집트 왕자〉 이후 27년 만”이라며, 이번 작품이 단지 흥행 숫자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영적 귀환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제작, 감독, 시나리오 - 모든 역할을 감당하라는 부르심

장 감독은 영화의 기획자이자 연출자, 시나리오 작가까지 모든 역할을 감당했다. 처음에는 외부 작가와 감독을 섭외했으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희미해지고 디킨스 부자의 서브플롯이 중심이 되어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다. “관객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봤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시나리오 작가는 세 번, 연출자는 한 번 교체되었다. 그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할리우드와 충무로 더빙 캐스팅조차 주님의 손길

더빙에는 복미와 한국 양쪽에서 세계적 배우들이 참여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장성호 감독은 고백한다. 복미에서는 크리스천인 보이스 디렉터 제이미 토마슨이 “이 작품을 위해 인생의 한 번뿐인 카드를 쓰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 덕분에 할리우드에서 유명 감독, 제작자, 각본가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케네스 브래너, 〈007시리즈〉의 피어스 브로스넌, 〈스타워즈〉와 〈둔〉의 오스카 아이작 등 유명 배우들과의 연결이 이뤄졌다. 한국판 더빙은 이성미, 송은이, 김지선, 조혜련 등이 캐스팅을 도왔다. 배우 이병헌은 이를 만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진선규, 이하늬, 양동근 등도 참여했다.

사랑에 집중 - 대중성과 복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바다와 같고, 저는 고작 물 한 동이를 담으려 한 것일 뿐입니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복음 전체를 담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안에서 대중성과 복음 사이의 균형을 고심했고, 그 과정에서 예일대 신학과 두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시나리오를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다듬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신자나 어린아이도 이해 가능한 언어를 선택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이 끝까지 붙든 주제는 ‘사랑’이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사건이야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소년 월터의 만남은 말이 아닌 체험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 대사를 배제한 채 연출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의 본체이심을 느끼게 만들어보자”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감독 자신의 신앙고백 일기

〈킹 오브 킹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 월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실제로 월터의 여정은 감독 자신의 신앙 여정과 맞닿아 있다. 장 감독은 “아서왕에 폭 빠져 칼을 휘두르던 월터의 모습은 영화에 빠져 살던 제 과거와 닮았다”고 털어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채 결핍을 안고 살기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물질, 권력, 관계에 집착하지만, 진정한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영화 곳곳에 복음적 상징을 넣으려 했다. 월터의 엑스칼리버는 십자가로 변하고, 캐서린이 든 칼도 십자가처럼 연출된다. 디킨스가 다리 위에서 비를 맞는 장면과 월터가 건져지는 장면은 세례를, 빨간 문은 유월절

피를 상징한다. “이 영화는 저의 신앙 여정 그 자체입니다” 장 감독은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향한 길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년의 고난 - 비로소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주셨다

〈킹 오브 킹스〉 완성에 10년이 걸렸다. 장 감독은 제작 여정을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됐다”고 고백했다. 막상 제작을 시작하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고,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냉소, 심지어 배신까지 경험했다.

코로나19는 결정적인 위기였다. 중국과 대규모 계약, 투자 유치, 회사 상장의 기대감까지 모두 사라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절망했다”는 그는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 꿇었다. “그전에는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에게 십일조는 더 이상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다.

장 감독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과 기도



소홀해지곤 했다”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연단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신다”며, 이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영화의 숫자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었다.

우상처럼 붙들었던 영화, 내려놓고 만난 주님

내성적인 장 감독은 어린 시절 영화 감상과 독서에 몰두했다. 마음 둘 곳이 없던 시절, 공허함을 그렇게 채웠지만 진정한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생의 깊은 시기를 지나며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데 오래 걸렸다”는 그는 신앙 교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 모두 해결하셨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 여정은 짧지 않았다. 과거 그는 영화를 우상숭배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달았고, 결국 영화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제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찾아왔고,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듬고 회복시키신 사랑의 여정이었다.

이 작품이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길

〈킹 오브 킹스〉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전도사역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했다. 복음 전파 씨앗은 조금함보다는 인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실제로 자신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가슴으로 내려왔고, 그제야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작은 친절과 이해, 포용이 곧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남**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과 『만남』 김성문 편집장

광고에 복음 신고… 뉴욕 간 ‘K-선교’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괜찮습니다”

인터뷰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It’s Okay with Jesus(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광고판이 걸려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 2026년 1월까지 1년 내내 볼 수 있다. 2017년 타임스퀘어에서 시작해 5대양 6대주를 누빈 복음 광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18년간 잘나가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삼성, 청와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오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 광고회사 대표를 내려놓고 선교광고를 택한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 광고를 통해 예수님을 알려온 그의 10년 여정과 비전을 『만남』에 소개한다.

정리: 김성문 편집장/안수집사





1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It's Okay with Jesus' 광고

2 3 2025년 6월 7일, 타임스퀘어에 모인 한인 성도 2,500여 명 집회와 거리전도



◀ 타임스퀘어 집회 영상

비 그친 타임스퀘어의 밤 연합을 봤다

지난 6월 7일 타임스퀘어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200만 재미교포의 복음화를 위해 마련한 블레싱 USA 캠페인 현장. 서부·동남부·동부 여러 지역에서 교단과 언어가 다른 목회자와 성도 등 2,500여 명의 찬양과 기도로 타임스퀘어는 진동했다. 유모차를 밀고 온 가족, 교회별 단체 신청자, 친구와 함께한 청년, 맨해튼 거리전도팀까지 다양한 얼굴이 하나의 예배를 만들었다. 쏟아지던 비도 거리전도를 나설 때는 그쳤다. 성도들은 날씨가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며 파더더피광장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했고, 네 구역으로 흩어져 버스킹·찬양·한국 전통 부채춤과 함께 전도를 이어갔다. 동부의 30여 개 교회가 워십시리즈로 협력했고, 전년도 서부 지역 교회 성도

들까지 합류해 열기를 더했다.

'It's Okay with Jesus' 티셔츠를 입은 성도들이 '전도지 50장 세트'를 들고 기쁨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의 장면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 무슬림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고 이사장은 자신의 사명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쏟아지는 광고 속 비어 있던 '복음'

"우리는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 예수님과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 이사장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선교광고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생수



5분 간증 영상 '들어볼까'

통에 말씀을 적어 고객들에게 전하는 한 택배기사를 보고 나서였다. “하나님이 전국을 배달할 수 있도록 거래처와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는 택배기사의 간증은 고 이사장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세상의 사업만을 위해 써온 달란트를 선교의 도구로 쓰기로 한 것. 그가 광고회사를 정리하고 비영리법인 ‘복음의전함’을 설립한 이유다.

복음 전하는 ‘복음의전함’ 선장은 예수님

그는 재단명에 담긴 중의적 뜻을 설명한다. “‘복음의전함’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전함(battleship)’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신 ‘전쟁하는 배’에서 24명의 평신도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본질에 관해서도 그는 비유를 들었다. “세상의 광고처럼 광고주가 있다면 광고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판매량, 브랜드 인지도, 이벤트 참가자 증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광고주이신 복음 광고의 수익은 오직 구원입니다”

다음 목적지, 아시아

다음 행선지를 묻자 답은 분명했다. “아시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나라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일본과 태국 등 아시아권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 1% 미만, 태국은 불교 문화권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덧붙혔다.

셀럽들의 5분 간증 ‘들어볼까’, QR박힌 복음명함

5분 내외 간증 영상인 ‘들어볼까’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이다. 연예인·셀럽의 ‘만나다/바뀌다’와



‘복음명함’ 이미지와 신청 사이트



복음광고 카피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좌측), 차량 '래핑 광고'(우측)

목회자의 '더알다' 강의가 핵심이며,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넘어섰다. 누구나 쉽게 링크를 복사해 지인에게 보낼 수 있어 접점이 넓어진다. 관심사에 맞춰 전하면 첫 대화의 장벽이 낮아진다고 조언한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최경주 프로의 간증을, 우울과 상실감에 있는 분에게는 이성미 님이나 최강희 님의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복음명함’은 뒷면에 삽입한 QR코드에 교회 소개나 간증 영상을 연결해 건넨다. 교회별로 원하는 링크를 담아 배포할 수 있어 관계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목회자 설교 영상을 통해 신자는 더 단단해지고, 비신자는 복음에 대해 더 알게 된다.

비신자의 언어로 쓰는 카피

10년 전,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복음광고가 신문, 지하철, 버스정류장, 대형마트 카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사랑보다 더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광고를 접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망설여졌는데, 이번 광고를 계기로 다음엔 직접 이야

기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카피는 기도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장은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지만, 비신자에게는 멀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누구나 공감하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메시지를 풀었다”고 설명한다. 새 카피는 비신자 지인의 피드백을 받아 표현을 다듬는다. 지금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카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동역을 소망

‘복음의전함’은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다. 사역이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쓰고, 일상에서 전도를 시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십시오”

고 이사장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거듭 확인하며, ‘복음의전함’은 순종으로 동참할 뿐이라고 했다. 이 기간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와 동역을 요청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괜찮습니다” **만남**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지난 호에서 필자는 조선신학교가 천리교 경성대교회(영락정 69번지, 베다니전도교회가 시작된 장소)를 어떻게 미군정으로부터 인수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왜 영락교회가 천리교 자리에 본당을 짓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공원터(영락정 63-13, 현 본당 자리)에 짓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69번지를 둘러싼 조선신학교 측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본다.

공원터 불하 받아 본당 건설 천리교 자리 조선신학교가 안 내놔

영락교회의 창립과 새로 등장한 건축 및 대지 구입 문제

한경직 목사는 1945년 12월 2일, 27명의 신자와 함께 베다니전도교회(1년 후 영락교회로 개명)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1946년 1월에는 100명이 되었고, 10월에는 1천 명이 넘었으며, 12월 창립 1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다.

영락교회가 창립한 다음 1946년 봄부터 북한기독교인들의 본격적인 월남이 시작되었고, 1947년 봄에는 북한의 식량난까지 겹쳐 대규모의 월남이 생겼다. 이들 가운데 특히 평북 사람들은 영락교회를 찾아왔고, 예배 장소는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몇 차례 예배당 내부를 확장했으나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1947년 6월에 이르러서는 이미 신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기존 건물로써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47년 여름부터 베들레헴성전 맞은 편 윗 쪽에 있



천리교 경성대교회 본전이던 베들레헴성전(영락정 69). 1954년 2월 조선신학교로부터 구입해 영락교회 소유가 되었다.

는 공원 부지에 약 20만 원을 들여 천막을 치고 예배드렸다. 그해 여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소나기로 인한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예배가 중단된 일을 계기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졌다.

영락교회는 원래 옛 천리교회의 건물을 헐고, 그곳에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자 했으나 미군정으로부터 이 건물을 임대한 조선신학교이사회는 이에 반대했고, 미군정도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리교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미군정이 기독교에 특혜를 주었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 1 정문에서 바라 본 천막성전(영락정 63-13번지).
- 2 63-13번지 불하받을 때 공헌한
김병훈 원로장로(당시 집사)
- 3 69번지 매입비를 대납해 교회 소유가 되게 한
故김치복 장로(당시 집사)

다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신학교는 나중에 천리교 건물을 불하받았지만 그 장소에 예배당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군정청 관재과에 근무하던 영락교회 김병훈 집사는 영락교회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원 부지(63-13번지)가 아직 불하되지 않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한경직 목사에게 알렸다.¹ 한 목사는 그 귀속재산 불하를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김병훈집사에게 맡겼다. 원래 이 장소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김병훈 집사가 먼저 이 일을 진행하여 불하받게 되었다. 이 자리에 영락교회 본당이 세워졌다. 김병훈 집사는 나중에 한경직 목사로부터 “큰일 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그는 100세가 넘는 지금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경직목사는 영락교회의 본당을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한경직 목사는 “그때 신학교 이사장이 함태영 목사였는데, 이분이 신학교 땅에 교회를 못 짓는다고 반대를 했시오”(한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52). 한경직 목사는 조선신학교 측에 무리하게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영락교회는 천리교 자리(96번지)에 교회 짓는 것을 포기하고 영락교회가 독자적으로 불하받은 윗 쪽 공원 터(63-13번지)에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1949년 3월 24일이었다.

1949년 3월 시작한 건축공사는 약 1년 후인 1950년 5월에 마쳤고, 6·25 직전에 완공 기념 부흥회가 열렸다. 이 건축을 위해서 온 교인이 재정과 시간을 헌신했다. 그래서 명동성당과 겨룰 수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

1) 영락교회의 토지에 대한 해방당시의 등기부에 따르면 영락정 69번지는 소유자가 재단법인천리교조선재단, 영락정 63-13은 인근 다른 땅과 함께 산본성삼(山本省三)으로 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변경되었다. 山本省三은 천리교 성직자로(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6월), 그의 주소는 69번지로 되어 있으므로 경성대교회 담당 성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63-13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천리교 재산물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고 보인다.



천막성전 자리에 건축한 석조 예배당

을 완공할 수 있었다. 1950년 3월 자유신문은 이 건물을 “해방 이후 처음 보는 건물”이라고 평가했다. 영락교회는 서울 최대 교회가 되었다.

애초에 염두 뒀던 자리 1.2억환에 구입

중구 영락정 63-13은 영락교회가 불하받았지만, 영락정 69번지는 여전히 조선신학교 소유의 재산이었다. 해방 후 조선신학교는 김재준 목사의 성서비평학 때문에 큰 논쟁이 빠졌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 장로회를 새로 만들었다. 한경직목사는 비록 조선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조선신학교 측은 영락교회의 조선신학교 소유 토지 사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조선신학교 측은 영락교회에 이 부지의 반환을 요구했고 불응 시에는 자기 소유에 철조망을 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으로 한경직 목사의 친구였던 조선신학교 송창근 교장은 납북되었고, 함태영 목사가 새로 인가된 한국신학대학(조선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 그는

1952년 부통령에 당선된 함태영 목사는 영락교회에 부지 반환을 요구했고, 영락교회가 이에 응하면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었다. 결국 이 협상은 3천만 환에서 시작하여 1억 2천만 환으로 인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의 대지 인수 의지는 강력했다. 그는 대한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던 영락교회의 김치복 집사에게 어떤 경우든 부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치복 집사는 1954년 2월 28일 부산에서 당시 한국신학대학 이사장이었던 김종대 목사와 부학장으로 있던 김재준 목사에게 자신의 사재로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1,870평의 대지를 양도를 받았다. 이것으로 영락교회 대지 문제는 해결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적산이었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산거외다. 이를테면 권리금을 준 것이지요. 잘 해결이 되었시오”(김병희, 『한경직 목사』, 53). 영락교회는 미군정으로부터 적산을 불하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한국신학대학 측에 가격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영락교회가 미군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한국신학대학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천리교 건물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한신대학 50년사』 37쪽에 보면, 한국신학대학은 경동교회에 장충동 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했고, 동자동 천리교 본부를 사용하고 있던 성남교회는 한국신학대학이 수유리로 이전할 당시 일부를 매각하여 예배당을 새로 짓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동교회와 성남교회는 같은 기독교장로회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갈등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지만, 영락교회는 예수교장로회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조선신학원과 갈등관계를 빚게 되었다고 본다. **만남**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은혜의 80년

할렐루야찬양대 | 지휘 노원일 | 오르간 박미라
베들레헴찬양대 | 지휘 백정진 | 오르간 김 진
갈릴리찬양대 | 지휘 조성환 | 오르간 김우경
갈보리찬양대 | 지휘 박신화 | 오르간 정혜연

임마누엘찬양대 | 지휘 박진우 | 오르간 박소현
호산나찬양대 | 지휘 장세완 | 오르간 전은배
베다니찬양대 | 지휘 백승현 | 오르간 한은미
시온찬양대 | 지휘 조형민 | 오르간 박원선

영락 호산나 오케스트라

연합찬양 | 지휘 조성환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영락교회 베다니홀

전석 초대 / 오후 5시 석식 제공 (제1식당)

주최 영락교회 창립80주년 기념사업회 | 주관 기념사업회 행사준비분과 | 후원 음악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영락교회



3평 땅에 뿌린 스마트팜 씨앗 ‘하나님의 농장’ 넓혀 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주일학교부터 중등부 그루터기, YDS, 고등부 아웃리치 등 다양한 선교 및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앙 간증을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오랜만이라, 글을 쓰는 매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 글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부 학생회에서 섬김에 눈뜨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공공기관에서 창업보육센터 담당자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100여 개의 입주기업을 관리하

며, 유튜버를 비롯한 뉴미디어 창작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고등부 시절 129대 학생회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통해 수련회 때 야식으로 나오는 어묵 한 그릇, 만두 하나까지도 선생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학생회 이전과 이후의 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퍼지고, 유익을 줄 수 있을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창업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안정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저에게 있어서 창업은 마치 광야에 나서는 것 같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정책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창업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성원 성도
고양·파주교구
고등부 교사, 미디어팀장
프로젝트처음 CEO



한 농부와의 만남… 창업이란 광야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계기는 한 농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농업은 저에게 너무도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농약 사용량, 날씨 정보, 작물 가격 등을 메모장에 손 글씨로 적어놓은 일지를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의 나날들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티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처음’의 마음을 현대에도 체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에서, 회사 이름을 ‘프로젝트처음’이라고 지었습니다.

2022년 3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창업팀을 꾸렸고, 한 농부께 빌린 농업용 창고의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첫 고객을 만났습니다. 이후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회사는

점차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도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 한 명만 남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삭막한 장소를 생명이 자라고, 사람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장’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처음’의 마음으로

3년이 흐른 지금, 기도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우고도 공간이 부족할 만큼,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자동화 식물공장부터 딸기를 수확·포장하는 로봇팔 기술까지 접목한 농업 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기술을 물류나 제조 산업에 활용하는 게 더 수익성 있지 않나요?”

그렇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년 전 제가 했던 다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창업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견뎌줄 이들이 곁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 일터 위에도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만남**



“처음이라 낯설지만…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 2025년 신임권사 수련회를 다녀와서

6월 24일 화요일, 2025년 신임권사 수련회가 ‘마르다적 삶’을 ‘마리아적 삶’으로 전환하는 훈련 장소인 영락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권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의 옷, 아직은 크지만

권사라는 직분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과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오정선 권사회장님의 “이 옷이 아직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다”는 따뜻한 환대와 격려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김운성 담임목사님께서 ‘권사 되지 마세요’(누가복음 10:38~42)라는 말씀으로, 먼저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말씀에 깊이 집중하며,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기쁨과 감사,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권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받은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회복하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해주셨고, 수련원에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점심은 영과 육이 함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평소 멀리서만 뵈

던 담임목사님, 늘 미소로 겸손을 실천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교구별 사진을 찍는 시간은 오직 신임권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참석한 신임권사들로 9개 조를 편성한 후, ‘버킷리스트와 듣고 싶은 문장’을 주제로 짧지만 진솔하게 교제했습니다. 이때 멘토 권사님들도 함께하여 신임권사들이 잘 세워지고 이어지도록 하는 신임권사 소그룹 모임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작, 그러나 은혜로

사실 재택근무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저는 하나님께서 일정을 조정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제 비뿔기로 4조 조장까지 맡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조장으로서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선배 권사님들의 조언에 따라 대면 모임을 추진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낯설고 분주한 가운데 뭔가 카톡방이 하나 더 생기고 모임이 생긴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 여겨지지만, 그



1 오른쪽 첫번째가 필자 2 수련회 장면

래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독에 답이라도 달아주시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올리고 잠잠히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조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조원에게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마음

권사 교육을 받는 지난 1년 동안, 1997년 10월 처음 영락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저를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기도해주신 권사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전쯤, 같은 구역에서 김장도 챙겨주시던 한 권사님께서 제 카톡 프로필에 올린 시「울 곳을 보고 수년 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침, 권사교육을 받으며 그분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던 중이라 성령님께서 연결해주신 선물 같아 신기하고 뭉클했습니다. 또 첫 아이를 낳고 구역예배를 드릴 때, 늘 친정엄마처럼 아기를 도맡아 업어주시고 먼저 식사

하라고 배려해주셨던 권사님들, 우리 가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며 날마다 기도해주시던 권사님… 감동의 눈물과 함께 “권사님,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뜬금없이 보내기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권사교육의 은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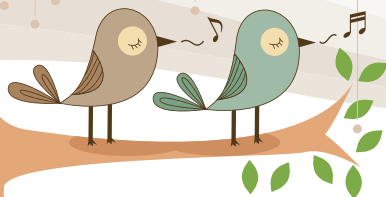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가정에서는 부족한 아내이자 부끄러운 엄마인 제가 권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찬양하며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어머니의 심장과 심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셨던 권사님들, 바보처럼 충성하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배우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5년 신임권사로서 ‘마르다적 권사’가 아닌 ‘마리아적 권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

류화정 신임권사 _ 종로·성북교구

고인 가는 길, 은혜의 찬송 동행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는 인천교구 조가대

오늘도 우리 조가대 대원들은 이른 아침 장례식장으로 모입니다. 고별 예배 중 조가 특송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키보드를 세팅하고 김은숙 반주자가 은혜로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상주 가족들과 상례부원들, 조가대가 함께 자리를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조가대 봉사는 은혜로운 고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어 집니다.

조가대로 봉사한 지 벌써 2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조가대는 2003년도에 김인 목사님께서 상례부 권사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송봉혜 권사
인천교구
인천교구 조가대 지휘자

인천교구뿐 아니라 여러 교구에는 고별 예배 시 조가를 부르는 조가대가 있습니다. 상례부 회원들의 수고에 비하면 조가대의 봉사는 아주 작고 소박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은혜를 끼치고자 섬기고 있습니다.

유족 위로하며 은혜... 상례부 수고 있어 가능

현재 인천교구 조가대는 10명의 조가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에서 슬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봉사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 먼 길을 걸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도착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가대 봉사는 가족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키보드를 싣고 반주자를 가장 먼저 모시고 섬기시는 이춘옥 집사님, 때로 운



구까지도 담당하시는 문영환 장로님과 구완중 집사님은 든든한 상례부원이십니다.

이 모든 봉사는 상례부 부원들의 수고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하시는 영락교회 모든 상례부 부원들과 조가대원들이 언제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작은 헌신조차 세심하게 보시는 주님

조가대 봉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20대 젊은 딸의 장례가 있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으로 고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부르는 특송곡으로 준비한 찬송이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짧고 강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꺼져 깜깜한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방 앞에 노인 한 분이 계셨고, 갑자기 처녀가 나타나 어둠 속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어디선가 급히 큰 소리로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녀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방



향을 틀어 밝은 빛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 큰 소리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고, 조가대의 아주 작은 헌신도 기억하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남**

매일 부어주시는 사랑 흘려보낼 뿐



신앙의 새로운 계절, 대학부에서 시작되다

올해 처음 대학부에 올라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3 입시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더욱 진심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기로 결심한 저에게 대학부에서의 모든 순간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모세마을 MT에서 따뜻한 가족 같은 구성원들을 만났고, 대학부 찬양대 SMC에서 플루트 세션을 맡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부에서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내선교 '마르투스'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배우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섬김'을 꼭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여는예배'에서 방덕종 목사님이 전하신 "섬김이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이며,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용기"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 영광에서 사랑의 증인 마르투스로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영광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 전한 사랑입니다. 마르투스선교팀 청년 44명은 통나무 나르기, 소 외양간 청소, 양계장 정리, 수로 공사 등 몇 분의 어르신이 하시기 버거운 농촌 일들을 온 맘 다해 감당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몸은 힘들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저희를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과 함께한 팀원들 덕분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민분들 집을 방문해 아이스크림과 직접 만든 간식을 나누고, 플루트 특송으로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했습니다. 저희의 정성 어린 손길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신 분들 계시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함께한 마르투스 벗님들께 전한 사랑입니다. 4일간의 여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전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학생회 선배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우리를 향한 헌신, 1조 선배님들의 따뜻한 챙겨주심, 특송 준비에 함께한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지나가며 건네는 벗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큰 감동으로 다가



조은영 성도
대학부 모세마을 53기



왔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과 행복을 주는 소중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44명의 벗님 모두와 더 가
까워지고 친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채워진 기도의 시간

놀라웠던 것은 날이 갈수록 힘듦보다 감사와 은혜가 제 기도
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체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
로 흔들릴 때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
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경험
했습니다. 또한 천사 같은 벗님들과 웃으며 나누는 모든 시간
을 통해 제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선교를 통해 사랑의 실천 역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 주시는 사랑을 주변에 흘려 보내는 통로라는 사실
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받은 사랑을 나누려 간
선교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벗님들을 통해 오
히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
우천해수욕장에서 노을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나 좋은

만남을 허락해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주세요.'

마르투스의 섬김, 계속됩니다

영광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신안 증도에 있는 순교기념관(문
준경 전도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이뤄진 복음의 기적을 듣고 깊이 감명받은 제 마음속에는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에
게 흘려보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사
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온 맘 다해 기도하게 되었
습니다. 3박 4일간의 국내선교는 끝이 났지만, 우리 대학부
가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하나님
을 예배하는 날까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으로 충만해지는 날까지, 마르투스로서 저의 섬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만남**

습관 넘어 피어난 회복의 찬양

익숙함에 갇힌 찬양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대 활동을 하며 신앙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했으며, 찬양은 제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해야 하니까' 같은 습관처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 형식이 달라지고,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찬양대는 제 일상에서 점점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부모님의 권유로 호산나찬양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찬양대에 서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매주 찬양을 준비하며 마음이 점점 열리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경준 성도
성동·광진교구
호산나찬양대

순회연주, 무대마다 펼친 즐거움

특히 이번 처음 참여한 호산나찬양대 40주년 국내 순회연주는 찬양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해 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되소서'라는 주제로 안동, 울산, 양산, 진주에 있는 교회 네 곳을 방문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날, 교회에서 여는예배를 드린 후 버스로 긴 시간 이동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순회연주 행사 중 하나였던 매니토 간식을 사기 위해 휴게소에 들를 때만 해도 제 마음에는 특별한 기대나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도 그저 '순회연주를 무사히 잘 다녀오자' '무사히 끝내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날 안동 용상제일교회에서 첫 연주를 드리고, 그 후 울산 하늘빛교회, 양산 사송영락교회, 진주교회에서 찬양을 한 곡 한 곡 부르면서 이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새롭게 느끼게 되며, 가사가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연습했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제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듣는 분들의 반응을 통해 찬양이 가진 힘도 새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울림으로 가득한 힐링 무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지막 날 진주교회에서의 연주였습니다. 한 외국인 성도분이 우리 찬양을 듣고 감동했다고 전해주시고, 앞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찬양대 단원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이 단순한 무대를 넘어,



▲ 사송영락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진주교회에서 연주를 마치고 조원들과 찰칵! ▶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순회연주는 잘 짜여진 일정과 좋은 숙소, 맛있는 식사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고 여유롭게 마칠 수 있었고, 그만큼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설레는 찬양의 길을 향해

이제 저는 찬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단순한 책임감이나 습관이나, 감사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이 있고, 때로는 연습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번



순회연주를 통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시간은 또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연습과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잠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만남**

통일독일 현장에서 드린 간구 “북음통일 마중물 되겠습니다”



북한선교부, 5박 7일 독일·체코 비전트립 여정

남북분단 80년이자 영락교회 창립 80년을 기념, 우리 교회 북한선교부는 통일의 문이 열리는 날 통일선교사가 되어 북녘땅에 북음을 전할 자유인 청년들과 함께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땅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비전트립 단원 27명이 걸었던 독일과 체코 여정을 함께 보실까요.



7월10일 저녁평가회 모습

7월 11일: 통일 염원, 뫼들라로이트와 부헨발트

독일 분단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산의 아픔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뫼들라로이트를 방문했습니다. 4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40년 동안 동서독으로 갈라져 있었기에, 이곳은 ‘리틀 베를린’이라고 불립니다. 한 반도에도 38선이 걷히고 어서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를 방문(사진1)했습니다. 독일 내 강제수용소 중 최대 규모이자 잔혹함의 상징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생체실험, 시신 소각 등 잔혹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보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월 12일: 통일의 불씨, 니콜라이교회에서

라이프치히 한인교회 권순태 목사님과 독일 통일 현장을 목격한 83세 최정송 권사님이 우리가 머무는 숙소로 찾아와 강연했습니다. 권순태 목사님은 “월요기도회(독일 통일의 발판이 됨)의 시작은 평화와 자유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독일에 통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통일을 향한 자유와 평화의 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반도 땅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독일 통일의 출발점이 되었던 니콜라이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훈 전도사님의 찬양, 김광식 장로님의 기도, 김형찬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이번 비전트립 주제 찬양인 '우리 오늘 눈물로'를 불렀습니다. 이어진 베르나르트 슈티프 목사님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자유인 청년들이 니콜라이교회에 온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콜라이교회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자유인 청년들이 니콜라이교회에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으며, 이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페이지를 써 내려갈 주인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할렐루야)

오후에는 폭우를 뚫고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비텐베르크를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내붙였던 비텐베르크성교회로 가는 도중, 넓은 마르크트 광장을 만났습니다. 마틴 루터 동상과 그의 조력자 멜란히톤 동상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며, 북한선교부도 자유인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팀장 조원형 안수집사

7월 13일: 통일을 그린 베를린의 하루

드디어 통일 현장의 중심, 베를린에 들어섰습니다. 독일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거대한 장벽은 이제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되어 통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East Side Gallery'라 불리는 이 옛 장벽을 따라 잠시 걸으며 그림을 감상하고, 우리는 한반도에도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는 한인교회인 베를린벤엘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동주 목사님을 비롯한 베를린벤엘교회 성도들께서 영락교회 비전트립팀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함께 통일의 비전을 키워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 박사인 김상국 교수님을 모시고,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국 교수님은 "동서독은 1989년에 통일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일은 1960년대, 동서독 간 민간 교류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며 "한반도 역시 이러한 시도가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무 최강원 집사

7월 14일: 브란덴부르크, 역사의 문 앞에서 품은 자유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사진2)했습니다. 이곳은 냉전 시대 동베를린에 속하면서 철조망과 분단의 장벽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왕래하



저녁기도회

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남쪽에 위치한 유대인 희생자 추모 공원에 들러 인간의 죄된 본성, 그리고 침묵하는 것 또한 대학살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드레스덴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비전트립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통일의 사명과 통일의 마중물의 역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레스덴의 츠빙거 궁전과 프라우엔교회 등 드레스덴의 건축물들은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김형찬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말씀과 찬양 기도 시간은 청년들의 삶과 비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열정으로 비전트립 기간 중 어느 저녁보다 뜨거웠습니다.

7월 15일: 프라하에서 본 신앙의 역사, 안 후스

마지막 날 아침, 아쉬움을 뒤로하고 독일 드레스덴을 떠나 체코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프라하는 독일 비전트립으로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안 후스 동상과 천문시계가 있는 광장에서 유럽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체코의 종교개혁자 안 후스의 삶을 되짚으며, 훗날 루터에게 영향을 미친 그의 사상을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 개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북한선교부 비전트립팀은 세 개의 길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언젠가 주님의 때에 한반도에 임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며,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의 불씨를 지폈던 니콜라이교회처럼 한반도 복음통일의 출발점이 영광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길이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 성지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세 개의 길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날**

회계 장재원 집사



체코 프라하의 안 후스 동상 앞에서



사랑부, 잊지 못할 여름수련회 광야를 지나, 거룩한 땅으로!

202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광야를 지나, 거룩한 땅으로’ 주제로 열린 사랑부 여름수련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37명, 교사 51명, 교역자 2명이 함께 홍해를 건너는 체험부터 광야예배, 십계명 퍼즐, 세족식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행복을 누렸습니다. **만남**

양승관 안수집사 _ 사랑부 부감





가스펠탐험대와 함께 '부흥대작전'





맨 오른쪽이 필자 ▶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양평 미리내 캠프로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전부터 '예정된 물놀이가 비 때문에 취소되면 어떡하지? 친구끼리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지? 조 배정이 잘못되어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면 어떡하지?'와 같은 사소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며 그런 걱정들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준비된 모든 활동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회였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즈음 열리는 기도회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신주현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셨는데, 특히 둘째 날 기도회가 더 와닿았습니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나의 아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아덴에 대해 목청을 높여 설교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나의 아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많은 것이 떠올랐지만, 결국 '나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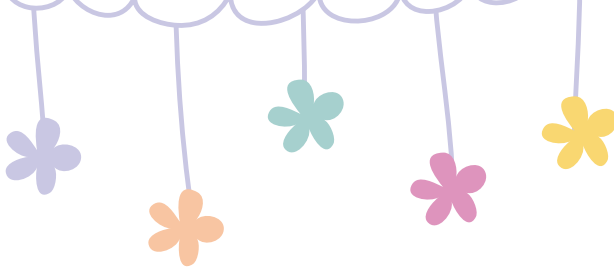
덴은 나 자신'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챙겨 왔던 삶을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아덴을 위해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뿐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덴을 위해 살던 부족한 저를 만나주셔서 나의 아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내가 되도록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가ospel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대작전'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부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이어진 셀러브레이션도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고 찬양에 몸을 맡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일상에서도 부흥의 불꽃을 지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박서후 _ 소년2부



‘우연 아닌 은혜였음을’



여름방학 계획 대신 네팔 선교사역 짐 꾸러

짧은 여름방학, 친구들이 방학을 계획할 때 저는 선교지를 향해 짐을 쌌습니다. 사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도착한 네팔은 환경이 열악해서 팀원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잡으며 첫 날을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은 발쿠라미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운 네팔에서 우리는 태권무, 부채춤, 스킷드라마, 풍선아트 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건넨 서툰 풍선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타이밍

그날은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었지만, 사역이 끝날 때까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간식까지 나눈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는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친구들과 탁구와 게임을 즐기며 교류했는데, 그 순간은 마치 천국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녁엔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시간표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이 있었습니다. 우기인 데다 안개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음 날 새벽안개가 걷히며 웅장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보이지 않아도 건다 보면 결국 보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마지막 날에는 빈민 지역에서 '밥퍼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호텔에서 식사하던 중, 몇 시간 전 한 끼를 위해 길게 줄을 서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음식에 불평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히말라야의 정상, 비가 멈춘 타이밍,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사랑까지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모든 시간과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체가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윤성
고등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3년만에 우리 교회서 - "한국선교 140주년, 초심으로 돌아갈 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영락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2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21번째 개최이며, 이는 개(個) 교회로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55년에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 선정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뜻깊은 총회를 섬기게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게 된 장로로서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80년의 역사, 빛과 기쁨이 겹치는 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이 맞물리는 특별한 해입니다. ‘빛을 되찾음’을 뜻하는 광복(光復)과 ‘영원한 기쁨’을 뜻하는 영락(永樂)이 겹치는 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 민족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김순미 장로
영락교회 제110회 총회 준비위원장
총회 제104회 부총회장
서초교구
서무부 부장

다. 80년 전, 조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복음을 노래하며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총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락교회에서의 총회, 그 깊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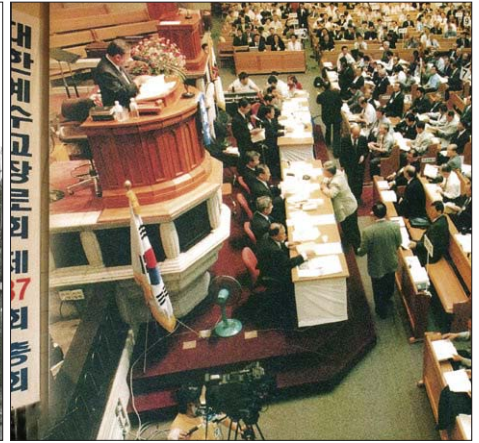
이번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고난과 회복의 상징이자, 한국 현대사의 굽이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해 온 공동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며,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교회로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 온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영락교회를 창립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는 복음주의 신앙, 청교도적 생활, 에큐메니칼 정신, 사회적 책임이라는 네 가지 주축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는 오늘날 총회가 회복해야 할 중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총회가 되기를

제110회 총회는 단순한 회무의 자리를 넘어, ‘다시 교회답게 서야 할 시점’을 선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선

1955년 4월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40회 총회의 모습. 영락교회는 제40회 총회를 시작으로 2002년 87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20차례나 총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했다.



2002년 영락교회에서 개최된 제87회 총회

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가진 것도, 안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을 처음처럼 붙들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교세의 크기나 외적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있는지'입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입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결단입니다. 이 주제가 단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눈감지 않고, 다름을 품고,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겸손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총회,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2,000여 명 참석 예정… '영락'에 걸맞은 환대로 맞자

총회는 통합교단의 총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전국 9,500여 교회가 소속된 69개 노회를 통해 선출된 1,500명의 총대(목사, 장로)들과 중경 총회장 및 부총회장들, 축하 하객(해외 총회장님들, 내외빈들), 초청방청단, 각종 매스컴 등 대략 2,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영락교회에서는 본당을 총회 진행에 맞게 준비하고 있으며, 총회의 다양한 부서가 모일 50여 개의 장소 준비 및 간식, 안내 등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에 교회 대부분의 사무실이 총회 및 부서들의 사용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가 은혜 가운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교단총회가 성 총회로, 은혜롭게 잘 치러지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미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어 있곤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뛰어놀던 놀이터라도, 비가 세차게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곳에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가 라면 아이들은 여지없이 놀이터로 뛰어나가 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갈 즈음이면 이미 옷이 흠뻑 젖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니다. 분주하게 흘러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그 사랑이 이미 제 마음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는 사실요.

캄보디아 유학하던 중학생 찾아오신 하나님

중학생 시절, 갑작스럽게 캄보디아로 선교사님과 함께



안태성 전도사
용인·화성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예배찬양(주일찬양)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1979년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낸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열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낯설고 물선 땅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외로움과 향수병, 두려움은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현지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선교사님을 따라서 오지 마을로 들어가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낡은 집을 보수하며, 현지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위로에 찬양으로 응답

그러면서 그 무렵 눈에 들어온 캄보디아의 자연 풍경은 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찬양의 가사를 수십 번 읊조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후회로 가득했던 낯선 땅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한 아이와의 특별한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끼 위해 10km 걸어오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

어느 날 고아원의 ‘밥퍼사역’을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배식을 마치고 식사하려던 순간, 늦게 걸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밥을 건네자, 아이는 밝게 웃으며 “어쿤(감사합니다)”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고 진심 어린 미소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매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10km를 걸어온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미소로 누군가의 삶 바꾸자 다짐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밤새 펄펄 울며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소를 잃지 말고 진심 어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자’ 그 다짐은 이후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좌충우돌 사춘기의 시기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의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도전을 마주했지만, 모든 순간마다 ‘밝은 미소’와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에서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제 마음과 삶을 가랑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의 소명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랑비 같은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도 웃으며 말려주신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이지철 목사

성경·기도로 교제하는 교회 소망

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묵상과 기도훈련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강남교구,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지철 목사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아내,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아버지께서 목양했던 성도 중에는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 아픈 분들을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삶에 소망과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삶에 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 여정을 걸으며 확신하는 것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길은 오직 성경 묵상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청장년 성

저는 이제까지 ‘영락교회’ 하면 늘 한정적 목사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보니 이 교회에는 지난한 세월을 함께 인내하며 손 맞잡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성도’들이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그 자체이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를 사랑합니다.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강남교구의 모든 성도와 평생대학의 모든 학생, 그리고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된 모든 이용인이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김여호수아 목사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살롬!

서초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를 담당하는 김여호수아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 이현분, 장녀 아현(초5), 차녀 선아(초3),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대전에서 4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셨던 목회자 아버지 덕분에, 교회는 집이자 놀이터였습니다. 강대상 아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아름답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제 삶의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목양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현재 영락교회는 이철신 원로목사님을 이어 김운성 담임목사님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북한 동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매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락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6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제 삶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채철우 목사

‘깊은 데’로 가 기도의 그물 내릴 것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동·광진교구, 의료선교부와 4남선교회·4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채철우 목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 김소영, 첫째 딸 하은, 둘째 딸 시은, 막내아들 도은까지 다섯 식구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인생의 의미와 진리에 대한 물음을 품고 있던 저는 ‘신학’이란 학문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마음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저의 사역의 모토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깊은 데

로 가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깊이’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교회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한다면 더욱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지 묵상해 봅니다.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기도 of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묵상의 그물을 내려서 풍성한 진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은혜로운 영락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락교회가 지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목사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셔서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잘하는 점은 더 힘낼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산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때마다 자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입니다. 영락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김종훈 목사

복음통일사역 헌신하고 싶어



살림! 노원교구, 사회봉사부, 친교부, 4부예배(헵시바)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첫째 딸 나연, 쌍둥이 아들 하준, 예준,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저는 어려서는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대학은 사범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1년간 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기회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발되었고, 레바논에서 8개월간 파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뜻밖에도 그곳에서의 생활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저도 파병에서 돌아온 후 파병 이전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고, 학부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통일업

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서는 북한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회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영락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을 늘 생각하셨고,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복음 들고 북한 땅으로 가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로서 준비가 잘 돼야 할 것인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에서 교회의 모범을 경험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370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근심되는 일이 참 많은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십자가 밑에 짐을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만 따라가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하나님이 하시니까... 노방전도 겁 안나요

중구·용산교구 제2여전도회의 섬김

중구·용산교구(박지은 목사)의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는 제2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배문성 회장 중심으로 출석 회원 20여 명이 모이는 여전도회로서, 이들은 선뜻 나서지 않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 회장의 임기 첫째인 2024년부터 시작된 전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12~15명의 회원이 모여 을지로, 충무로, 명동 등 교회 근처를 돌며 전도합니다. 이는 출석 인원의 반이 넘는 회원의 참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리 원활히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 든 사람들의 회로애락으로, 기쁨도 상처도 그들의 감정에 움직여지는, 그 어려운 노방전도를 선뜻 찬성하는 회원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배 회장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며 2~3명으로 시작한 전도였습니다. 교회에 준비된 전도지와 전

도용 물티슈, 식사 후 필요할 듯한 사탕 2개를 넣어 만든 전도용품 꾸러미 200개를 준비하여 오후 1시경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섭니다.

전도 꾸러미 건네며 주님 함께하심 확인

“예수님 믿으세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와 함께 꾸러미 한 개를 건네 드릴 때의 반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어느덧 1년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십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휴지는 잘 쓸게요” 하며 꾸러미를 공손히 받을 때는 ‘정말 잘 나왔다. 분명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으로 발걸음도, 목소리도 당당해지며, 각자에게 주어진 20여 개의 전도용품 꾸러미를 순식간에 모두 나눕니다. 그러나 위아래 훑어보며 눈까지 흘기는 사람을 대하면, “눈까지 흘겨볼 것은 뭐야” 하며





구시령대는 회원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이비 종교 전도단이 많다 보니 그리 오해받는 듯도 했습니다. 살짝 상한 마음을 추스르며 함께한 회원들의 재치는 이때 발휘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영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영락교회요? 수고하십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론 “회장님, 저는 전도용품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하며,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이는 회원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가서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으세요” 하는 명쾌한 대답과 함께 20~30분으로 정해진 노방전도 봉사를 마무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노방전도였습니다. 모든 회원이 술선수범하여 함께 중보기도하며 전도용품 꾸러미를 만들어가다보니, 어느덧 4~5배로 늘어난 전도 동참 회원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배 회장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새로운 후임 회장과 함께 계속 진행하게 하시며, 교회 전 지회에도 영향을 주어 여전도회원 모두 ‘전도의 여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며, 글썽이는 눈망을 속에 환하게 웃음을 짓는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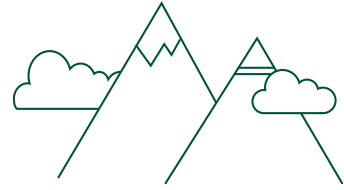
배 회장은 이미 전도의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지회원들과 이런저런 세상 얘기로 친교를 나눌 때, 늘 공허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면, 예수님이 빠진 만남은 세상의 모임일 뿐이다. 무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 전도 폭발 훈련받을 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팀장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디 이들의 행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자녀들,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만남**

취재·정리 이재향 기자

토요일의 산상기도회 3040 참여 늘었다



7월 5, 12일 영락기도원서 교구 연합으로 치러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5일(토)과 12일(토)에 영락기도원에서 ‘교구 연합 산상기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기존의 금요일 저녁 일정에서 토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3040 세대와 자녀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성도님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집회에서는 한홍 목사님(새로운교회)께서 ‘영적 공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2차에는 이상억 교수님(장신대)께서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회 이후 이어진 레크리에이션과 교제
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로
여여주었고,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의

시그니처 메뉴인 냉면이 점심으로 제공되어 참여한 분들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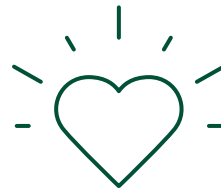
70여 년 산상기도회 추억 담은 사진전도 열려

특별히 이번 산상기도회에는 8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산상기도회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산상기도회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우리 교회의 뜨거웠던 기도의 역사를 되새기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연로하신 은퇴 제직부터 이번에 참여한 어린 자녀까지, 세대를 잇는 기도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전 교인이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남**

목양부



우리 작은 섬김, 하나님 큰 사랑



천국잔치 준비 위해 고민 기도

산상기도회에서, 생활부는 성도님들의 점심을 정성껏 대접하는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천여 명의 식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생활부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모든 분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듯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산상 릴레이 기도방을 개설하고 매일 밤 정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임원분들, 봉사자들의 환한 얼굴과 미소를 통해, 산상에 오르신 천여 명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 있기에

7월 4일 산상기도회 전날, 생활부 봉사자들은 냉면 그릇, 대형 숟, 쟁반 등 식기류를 설거지하고, 타 부서 봉사자들과 함께 옥수수 천여 개를 손질했습니다. 솔선수범으로 웃으며 헌신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일 새벽부터는 봉사자들이 손수 옥수수 찌기, 달걀 삶

기, 고기 썰기, 옥수 만들기, 냉면 삶기, 그릇에 담아 나르기, 식당과 소망관 서빙, 배식,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로운 과정을 척척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영락교회, 못 할 게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수많은 수고와 사랑을 식탁에 올리는 모든 과정을 순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후 한 성도님께서 “이 한 그릇이 세상에서 먹어본 냉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초대받아 오신 권사님 두 분께서도 “냉면과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회에 섬김으로 참여한 모든 분의 수고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80년 전, 영락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처럼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셨겠지요. 시대는 변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변함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을 통해 100년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함께 동역한 생활부, 교구의 모든 봉사자,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김성완 권사
서초교구
산상 1차 생활부장

조용히 빛나는 별, 한경직



2025년 7월 17일, 하늘에서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날, 학생회 임원으로서 ‘한경직 캠프’에 다녀왔다.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거세게 내리는 비에 걱정되기도 했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후 첫 번째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캠프의 첫 목적지는 한경직목사기념관이었다. 영락교회 안에 있는 4층 건물의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쓰여있는 문구였다.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하셨다. 안으로 더 들어가니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업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과 기록, 실제 사용하셨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자료들을 보며 영락교회에 대한 설명도 들으니, 한경직 목사님은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해방 이후 혼란했던 대한민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졌다. 전시 물품 중 한경직 목사님이 수없이 읽고 넘겼음이 느껴지는 성경책이 유독 인상 깊었다.



이승희
영락중학교



이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목사님이 살던 집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책장, 낡은 의자, 평범한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는 그 공간은 모든 것이 담백하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우리 할머니 댁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공간은 목사님의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영락교회 본당에도 들어가 보았는데 굉장히 넓고 층고도 높았다. 주일에는 이 넓은 공간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설명을 듣고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기념관 관람을 마친 뒤, 근처의 호텔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학교 급식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들이 좋고 즐거웠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소박했는지를 떠올리게 됐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에는 두 번째 목적지인 송실대학교로 향했다. 캠퍼스를 지나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또 비슷한 전시일 거로 생각했지만, 막상 들



어가 보니 분위기가 달랐다. 단순히 유물이나 기록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한경직 목사님의 사상과 철학이 깊이 조명하는 장소였다. 목사님의 사회 참여 활동들이 사진으로 정리된 공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도우며 보여준 리더십에 감동하며, 목사님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캠퍼스 내의 한국기독교박물관을 방문했다. 1층 한국기독교역사실에는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의 역사 등 한국기독교의 발전 자료들이, 2층에는 숭실역사실과 근대화와 민족운동사실이, 3층에는 고고미술실이 있었다. 3층 고고미술실에는 국보 2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자세히 보았다. 그렇게 본 국보 제141호 '정문경'과 제231호 영암 출토 '청동기거푸집'은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전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상치 못하게 만난 '곤여전도'였다. 전시를 볼 땐 거대한 세계지도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지만,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누어 그린 최초의 양반구형 세계지도라고 해서 더욱 신기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1층부



터 3층까지 휘리릭 보았는데, 다음에 방문한다면 자세히 오래 보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한경직 캠프를 끝내니 처음 시작할 때 비가 쏟아지던 우중충한 하늘은 온데간데없고,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이 남아있었다. 우산을 몇 번이나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많은 장소를 오갔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캠프는 단순히 학생회 임원으로서 의무가 아닌, 한 사람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직접 따라가 본 여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느꼈다.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빛나는 별 같았다. 타인을 위한 삶, 정의로운 선택, 겸손한 태도, 흔들림 없는 신념. 그분이 걸었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길이 되고 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그렇게 살아나기를 다짐한다. **만남**

보이스피싱 ‘작은 방심’ 파고든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앱 설치, 대출권유 안 해

이상하다 느끼면 통화 즉시 끊고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112나 1332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5~16)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개인정보를 탈취당해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유심이 복제되거나 본인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나는 이런 사기에 절대 속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단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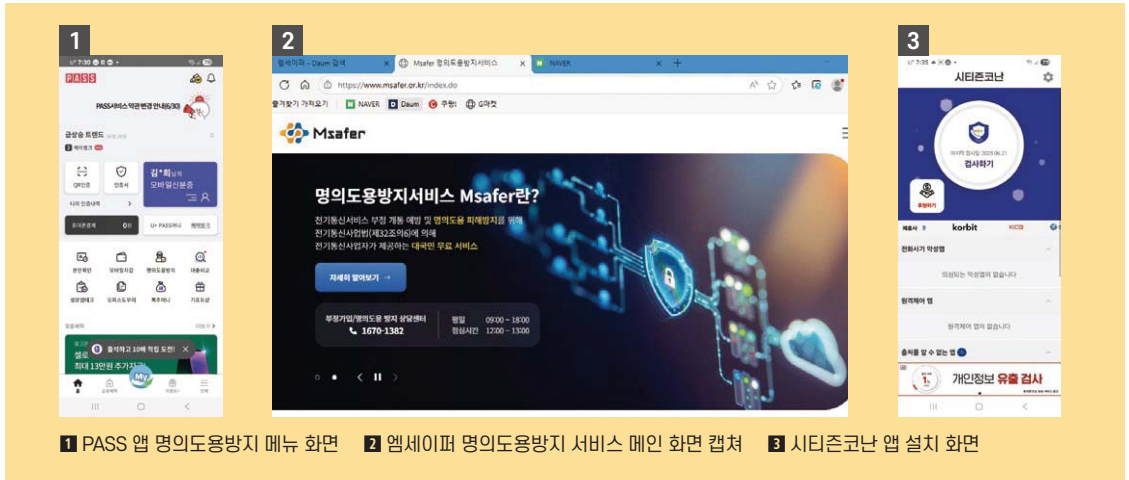
SK텔레콤 이용자라면 무료로 제공되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유심이 무단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 로밍 중에는 적용 불가).

2. PASS 앱의 명의도용방지 기능 활용

‘PASS’ 앱 하단의 [전체] > [생활/편의] > [명의도용방지] 메뉴에서 자신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신희 안수집사
인천교구
재정부 차장
키움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 CCO



3. 비대면 금융거래 및 대출 개설 차단 신청

금융기관(예: 주거래은행) 한 곳에 가서서 ‘비대면 거래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 되더라도 전 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비대면 통장 개설 및 대출 실행이 차단됩니다(송금 등 본인 직접 거래는 계속 가능).

4. 엠세이퍼(M-Safer) 통한 통신 명의 확인

PC나 모바일에서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등의 시스템 활용).

5. 시티즌코난(Citizen Conan) 앱 설치

‘시티즌코난’ 앱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줍니다. 반드시 공식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하시고, 유사 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

다면 즉시 삭제하세요. 사진 유출 시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키는 안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고령의 부모님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꼭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통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연락하십시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나와 가족, 교회를 보이스피싱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만남**

새가족 36명 영락교회서 신앙 뿌리내린다

상반기 새가족부 신앙정착반 종강

새가족부(부장 김호섭 장로)는 신앙정착반을 운영하며, 영락교회 등록교인이 된 새가족이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신앙정착반은 총 48명의 새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매주일 오전반(2부 예배 후)과 오후반(3부 예배 후)으로 나뉘어 봉사관 404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양육 위원을 포함한 소그룹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위로 격려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주일, 36명의 수료자와 봉사자가 함께 모여 종강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말씀과 격려 메시지, 수료자 간증 등 그동안의 신앙 여정을 나눴습니다.

하반기 신앙정착반은 9월 첫째 주일에 시작합니다. 영락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신앙정착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 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부



▶ 신앙정착반 자세한 정보



신앙정착반 영성수련회 (2025년 4월 5일)



신앙정착반 수업 모습

영락은 이제 내 교회입니다

친구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계절 신자이던 나

안녕하세요? 작년 9월 8일부터 영락교회의 등록 교인이 된 김은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사랑받는(외향적인 성격으로 인기 많은) 아동 신자였습니다. 전도하는 친구 따라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과자 받으려고 이 교회, 여름에는 성경학 교에 참여하려고 저 교회에 가는 ‘계절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적 지하에 있는 교회에 갈 때마다 “은경이는 참 사랑받는 아이야!” 하며 자주 말씀해주신 전도사님께, “저는 사랑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라고 반항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심으로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싶었지만, 정착하도록까지 꼭 붙잡아 준 누군가는 없었습니다. 막상 매주 교회에 오라고 연락하는 전도사님, 친구가 있어도 계절 신자였던 저는 권유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친구를 따라, 또는 성가대였던 남자 친구와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김은경 성도
강북·도봉교구

믿음으로 다니기보다는 ‘○○의 여자 친구니까’ ‘○○의 친구니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친구와 헤어지면 내 교회가 아닌 친구의 교회였기에 자연스레 발길을 끊곤 했습니다.

잡아주는 사람 없고… 교회는 그렇게 멀어져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도 “나 오늘 청년부 모임 있어서 가야 해, 나 일요일에 교회 가잖아,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정말 가진 것 없고, 뭔가 허전하고 부족했던 저였기에 이런 말들이 부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해서 ‘교회는 나랑 안 맞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갔었는데 아무도 날 잡아주지 않았잖아’라고 생각하며 교회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열떨결에 받게 된 신앙정착반 교육

저는 약 19년 동안 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무교였던 저는 그곳의 불교 마인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불자가 되어 절에도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스님들도 좋았고 산속 사찰도 좋았고,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불교라는 신앙은 생활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찾아가는 ‘계절 신자’(부처님

오신 날, 새해)’처럼, 불교는 제 삶의 원천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9일,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어 9월 8일 절에 들러 부처님께 굿바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직한 기관의 관장님 전도로 영락교회 4부예배에 참여했는데,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베다니광장의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신자들, 교회를 배경으로 부모와 자녀, 손주 3세대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며 새신자반을 수료한 뒤, 종강식에서 권사님이 “이거 좋은 거예요” 하며 건네신 종이의 체크 항목에 아무 생각 없이 ‘✓’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신앙정착반 참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신앙정착반이 아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크리스천으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대학교 시절에 가졌던 ‘과자 주니까, 여름성경학교 하니까’와 같은 신앙 스타일을 고수하며 계절 신자에 머물거나, ‘○○기관의 직원이니까’라는 의무감에 ‘보여주기식 신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즐기려 했던 제가 몇 달 전부터는 설교를 들으며 메모하고, 찬양대 찬양에 감동해 눈물 흘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신앙정착반 주진옥 권사님의 권유대로 영락교회 예배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신앙정착반에서 설교로 나눔



주시며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목사님, 신앙 뿌리내리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양육위원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덕분입니다.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제가 힘들 때, 제가 외로울 때, 제가 위험에 처할 때 ‘누가 네 손 잡아주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묻는다면 “영락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가정에 행복과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끌어주셨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쉽지 않은 성도였는데 잘 이끌어 주시고 영락교회 안에서 신앙을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신 신앙정착반 목사님, 양육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만남**

특별새벽기도회, 하반기 은혜로운 첫발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별새벽기도회가 6월 30일(월)부터 7월 5일(토)까지, ‘잠시 멈춰 서세요’ 주제로 본당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운성 담임목사님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회 기간, 새벽마다 전해진 말씀은 성도들에게 깊은 묵상과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6월 30일: 인생사용 설명서 -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비밀(시편 119:73)

7월 1일: 깊은 곳에 있을 때 -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결한 삶을 결단(시편 130:1)

7월 2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시편 139:1~4)

7월 3일: 하나님께 가까이 -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시편 145:18~21)

7월 4일: 바보들의 합창 - 지혜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잠언 1:7)

7월 5일: 문 곁에 서세요 - 주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모함(잠언 8:32~36)

이번 기도회는 제게 신앙의 깊은 성찰을 끌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신앙의 열기가 식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금요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열정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도회를 통해 잠시 멈춰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기도의 호흡으로 하반기의 걸음을 다시 걸어갑니다. 잠시 멈춰 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회 마지막 날, 김운성 담임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반기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갈길 바란다’며 전해주신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남**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김천경 집사 _ 고양·파주교구, 홍보출판부 기자

2025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공모주제

빛으로 이끈 발자취,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

| 소주제 | 1.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
2. 복음에 빛난 자들의 삶

응모기간

2025년 9월 1일(월)~9월 30일(화)

응모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040

응모형태

개인/단체(최대 3명)

응모방법

- ▶ 직접제출: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방문 접수
- ▶ 이메일 접수: clibmi@naver.com
 - 이메일 제목: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참가자명, 참가학교)
 - 파일명: 참가자명(소속, 연락처)

주최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관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선교 140년... ‘2025 북적북적 공모전’ 개최



빛으로 이끈 발자취,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

한국 기독교는 개화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에 따라, 동방의 작은 나라로 오게 된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과 한국의 독립,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격변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의 전환점마다 정치,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자리매김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돌아보

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처음 한국 땅에 뿌리 내린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며, 복음에 빛진 자로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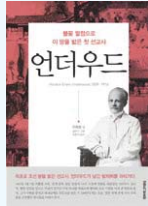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복음의 책임을 되새기며 ‘2025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선정도서

[중고등부]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
김석영
kmc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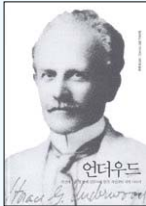


**언더우드,
불꽃 열정으로
이 땅을 밝은
첫 선교사**
이희갑
생명의 말씀사
2020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이덕주
홍성사
2013

[대학부/3040]



언더우드
윌리엄스 H. 언더우드
ivp
2020



아펜젤러
윌리엄 그리피스.
ivp
2015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셔우드 홀
좋은씨앗
2009

[공통]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덕주
홍성사
2006



**스토리텔링
한국교회 선교역사**
김은홍
세움북스
2020



**새로 쓴
한국 기독교의 역사**
류대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3

● 응모부문

독서감상문 A4 3매 내외, 글자폰트12, 신명조

주제에세이 A4 1매 내외, 글자폰트12 / 자유형식

선정 및 추천도서 외 관련 자료 참고 가능, 인용 및 출처 명시

영상 MP4파일(해상도 1080p이상) - 동영상상이 업로드된 유튜브 URL을 제출

● 일반 : 1920 1080 가로형 영상, 영상길이 5분 미만 ● 쇼츠 : 1080 1920 세로형 영상, 영상길이 1분 미만

회화/만화 ● 회화 : 8절, 4절 중 선택가능, JPG, PNG파일로 제출

● 만화 : 4컷 이상, 1컷당 JPG, PNG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손그림 또는 디지털아트

※ 독서감상문/주제에세이 작성 예시

(예시1)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킨 기독교인들의 사료, 전기를 읽고 읽은 인물의 사상 중 인상 깊은 구절을 인용하여
당시 인물이 느꼈을 갈등과 오늘날 나의 관점을 비교 서술

(예시2) 특정 사건(예: 3.1운동, 여성의 인권 향상, 학교와 병원의 근대화 등)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기독교 존재 이유,
교회의 사회적 존재 의미와 역할

- 수상자 발표 : 11월 2일(주일)
- 시상식 : 11월 9일(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
- 시상내역

		응모부문					
		독서감상문		그림/영상		주제에세이	
		중·고등	대학:3040	중·고등	대학:3040	중·고등	대학:3040
경천 애인상	인원	중·고등 1명 / 대학:3040 1명					
	상금	150만 원 / 200만 원					
	시상기관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공동 시상					
최우수상	인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상금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시상기관	송실대학교 총장		명지대학교 총장		한동대학교 총장	
우수상	인원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상금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시상기관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려상	인원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상금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시상기관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하반기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권사회

하반기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가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기념관 503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경회는 권사회(회장 오정선 권사) 주관으로 열렸으며, 탁현수 목사의 인도로 157명의 성도가 참가했다. 이전까지는 성경 음성 파일을 틀고 눈으로 따라 읽는 방식이었다면, 금번 사경회에서는 통독 음성과 함께 말씀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통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탁현수 목사는 신·구약 성경 완독을 목표로 통독 시간을 연장하고, 성경의 맥락을 섬세하게 설명하는 개요 강의 등을 통해 성경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말씀 속에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이 신앙의 근육을 단단히 다지고,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



비하도록 인도했다. 권사회 임원들은 매일 풍성한 간식과 따뜻한 섬김으로 봉사하여 충만한 은혜를 더했다.

붕어빵에 사랑 싣고… 농촌교회에 붕어빵기계차 지원

제1여전도회

제1여전도회(회장 장은희 권사)는 농어촌 선교의 일환으로 진주노회 소속 농어촌 동반성장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를 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 임원이 함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진주노회의 5개 교회를 찾아가 목회자들의 사역 현장을 둘러본 후, 지역 사회에 전도를 펼치고 있는 진주노



회 소속 화강교회(김명호 목사·원쪽사진)에 붕어빵기계차를 지원했다. 붕어빵기계차 장착된 카니발 차량은 전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제1여전도회는 하반기에도 3개 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중독회복자인권재단 공식 출범 감사예배

중독 회복자들의 인권 보호와 치유사역을 위한 사단법인 중독 회복자인권재단이 지난 7월 26일(토) 오후 1시, 개소 감사예배를 드리며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안용운 목사(행복한윤리 대표)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함께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박진권 사무총장이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마약, 알코올, 성중독, 도박, 게임, 인터넷 등 여러 형태의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교회가 앞장서 중독자와 회복자를 따뜻하게 품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축사를 통해 "이 시대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 사역에 큰 기대를 걸며,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힘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중독회복자인권재단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회복과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연대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영락애니아의집’ 개원 31주년 감사예배 및 특장차 전달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4년에 개원한 '영락애니아의집'이 개원 3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전찬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많은 섬김과 나눔의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락애니아의집'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장애인용 특장차 전달식에서는 김도원 후원자가 6천만 원을 기부하여 마련한 특장차를 전달했다. 지난 16년 동안 '영락애니아의집' 공식 '산타'로 불리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도원 후원자는, 어려운 이웃을 섬겨오신 조모 김덕윤 은퇴권사와 신은정 은퇴장로의 뜻을 이어받아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되어 '부릉부릉 Do Won car'라는 애칭과 함께 '영락애니아의집' 장애인들



의 든든한 발이 될 특장차는 이날 첫 시동을 걸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말씀에 순종... 물이 포도주로 우리의 삶에도 기적 임하시길



가나의 혼인잔치

Wedding Feast at Cana

1563년 제작

파올로 베로네세(Paolo Veronese)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한복음 2:5)

16세기 베네치아 화가 파올로 베로네세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모티브로 한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요한복음 2장 1~11절의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하인들에게 여섯 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즉시 순종하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이 기적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13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시각화한 이 거대한 작품은 르네상스시대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화려한 색감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노란 옷을 입은 하인이 항아리에서 물을 따르는 모습에서 붉은색의 포도주가 포착됩니다. 신랑 신부는 화면 왼쪽 식탁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고, 화면 중심에는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치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이 임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5년 9월호 통권 617호

발행 2025. 9.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사진기자 박흥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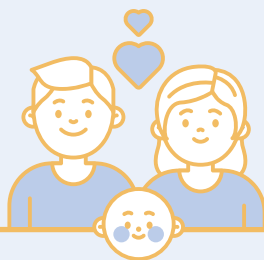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6·7월

새가정



- 1 김성현, 고명주 가정
- 2 최정진, 신별이 가정
- 3 정지훈, 장현진 가정
- 4 이재석, 김의주 가정

새아기



- 5 조윤우(조요환, 이지건 가정)
- 6 방은채(방대건, 이미혜 가정)
- 7 이주안(이세용, 박지원 가정)
- 8 김유민(김창석, 김민지 가정)
- 9 안이소(안동현, 임소희 가정)



가나의 혼인잔치(Wedding Feast at Cana, 1563)

파올로 베로네세(Paolo Veronese)